

실생활手指鍼 ⑥5

가족 건강을 내가 지킨다

權 赫 來
편집고문



오색五色的 병색病色과 건강한 색택色澤

황제내경黃帝內經(약 2천년 전에 쓴 중국의 고전古典)에 이르기를 외형外形을 보고 질병을 아는 의자醫者를 신인神人, 듣고서 질병을 아는 의자를 성인聖人, 물어서 아는 의자를 공인工人, 신체를 만져보고 아는 의자를 교인巧人이라 하였다.

이러한 네가지 진찰방법(사진四診)의 첫번째가 환자의 외형을 보고 질병을 판단하는 망진법望診法이며 환자의 상태가 생기生氣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가생기假生氣(임종 임박)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안색이 어떤 색상(오색五色的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을 띠었는지 살펴서 질병의 원인과 경중을 판단하고 있다.

생기란 생명력生命力の 기운을 말한다. 생기가 있는 사람은 눈이 총명하고 언어言語가 맑고 밝으며 발음이 분명하고 의식이 분명하다. 또 신체의 기육肌肉이 튼튼하고 정상이며 소화에 이상이 없어져 질병이 생겨도 곧 치료된다. 생기를 잃게 되면 눈이 어둡고 어지러우며 형색形色이 쇠퇴하고 숨이 차고 급하며 설사와 이질이 그치지 않는다. 전신

身の 근육에 살이 빠지고 마르며 양손으로 옷이나 침대를 더듬고 혼미상태와 인사불성이 되며 눈이 감기고 입이 벌어지며 대소변을 분별없이 보고 정신을 제대로 못차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병세나 예후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듯 생기란 생명활동의 표시이며 신체가 건강하면 생기도 왕성하고 신체가 쇠약하면 생기도 쇠약해진다. 그러므로 생기와 형체는 함께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기는 오장五臟으로부터 생기며 얼굴의 색택色澤은 생기를 따라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기와 색택은 오장의 혈기성쇠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기혈과 오장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항상 전신의 색택은 밝고 윤기 있게 된다.

소문素問의 오장생성편五臟生成篇을 보면 오관五官은 오장에 속하는데 코는 폐肺가 맡고 눈은 간肝이 맡고 입술은 비脾가 맡으며 혀는 심장心臟이, 귀는 신장腎臟이 맡는다고 하였다. 폐의 병은 천식으로 나타내고 간병은 청靑색이 되며 심장병은 혀에 이상이 생기고 광대뼈 부위가 적赤색이 되며 신장병은 흑색, 비장의 병은 황색이 된다고 하였다. 안

색이 적색이면 심장과 관계가 있다. 적색은 불火의 색이고 피는 붉으며 심장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음주후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심혈이 흥분되기 때문이며 감기로 발열하거나 기타 열병이 심해도 얼굴이 붉어진다. 그밖에 뇌충혈腦充血 등 여러 가지 증세가 있을 때도 붉어진다. 건강할 때도 얼굴색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갑자기 환희감을 느끼게 되거나 양심상 자극을 받게 되거나 흥분을 유도하는 능동적 행동을 취할 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얼굴색과 손톱이 홍紅색이면 건강한 것이다.

안색이 백색이면 폐와 관계가 있다. 백색은 금金의 색이고 폐의 본래 색이 백색이기 때문이다. 얼굴색이 희고 피부가 흰 것은 폐기肺氣가 약한 것이 원인이 된다. 특히 폐결핵 환자도 피부색과 안색이 창백하고 피부가 약하다. 또 근심이나 수심의 감정이 깊을 때, 타인에게 의심을 받을 때 안색이 창백해진다. 건강할 때도 백색인 경우가 있는데 안색이 백색이면서 윤택한 사람은 심·폐의 활동이 좋은 사람이다. 또 비만증이면서 피부색이 백색이면 정치가·사업가

로서 패기가 왕성한 표시이다. 안색이 황색이면 비장과 관계가 있다. 황색은 토土의 색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양육養育시킴으로 비토脾土가 음식물을 소화시켜 그 양분으로 오장육부를 배양함과 같이 비유된다. 일반적으로 소화불량·빈혈증 등 위승비허胃勝脾虛인 경우에 황색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색思索이나 사념思念을 깊이 하는 사람도 황색이 되며 소화불량이 있게 된다. 건강할 때도 황색인 경우가 있는데 비위脾胃가 튼튼해서 윤택한 경우와 기육肌肉이 두껍고 혈이 충만한 경우이다.

안색이 청색이면 간肝과 관계가 있다. 간은 목木의 색으로 질병이 생기면 얼굴과 눈의 색은 청색이 된다. 그리고 초목草木이 흔들리는 것처럼 머리가 어지러우며 움칠움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얼굴에 청색이 나타나면 오래지 않아 간풍병이 발생하게 된다. 건강할 때도 청색인 경우가 있는데 싸워서 분노하는 경우, 어린이가 경기가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 분노심이 농후하고 신경질적인 경우가 있다.

안색이 흑색이면 신장과 관계가 있다. 신장은 수水에 해당되며 깊은 물속의 색은 흑색인 고로 신장병환자는 얼굴이 흑색이 되는 것이며 공복시에 더욱 검어진다. 일반적으로 신실증 또는 신장병이 악화되는 경우에 얼굴은 물론 피부색까지도 검은색이 된다. 또 유정遺精·몽설夢泄·요슬腰膝이 아프면 얼굴이 흑색이 되고 윤기가 없어진다. 건강할 때도 흑색인 경우가 있는데 얼굴이 검으면서 윤택하면 비교적 허리힘이 강하고 정력도 왕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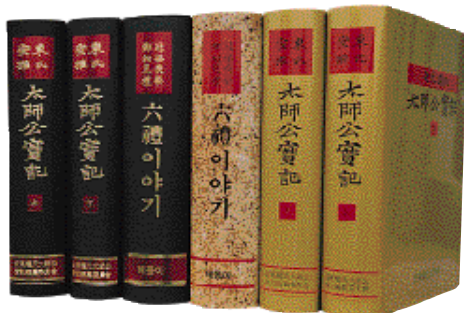
며 또한 임신부도 얼굴색이 검어지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이 생기와 오색을 보고 병을 진찰하는 것을 찰색察色이라고 하며 망진법 중에서 제일 주요한 분야이다. 고려수지침요법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 우선 망진법으로 병세의 대강大綱을 진단한 후 윤기체질검사·삼일체질검사 등을 통하여 병의 원인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치료에 임하고 있다.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 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저자 - 權五焄
저작권자 - 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 - 安東權氏宗報社
상·하 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 사은품 증정



4·6배판 1630면에 집성된 시조 태사공의 득성이전 김알지大輔公 이래 천년과 득성 이후 천년의 榮辱과 곡절이 어린 안동권씨 姓族의 大河實錄!
文獻世鑑·太師權公實記·陵洞誌·陵洞實記·陵洞千年略史 등 안동권씨대종중에 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 편敘事의 완벽한 국역주해와 원문조판 병재!
원색사진판 96면, 원고지 1만여장 분량으로 책자의 수명 1백년을 내다보고 제작한 최고급 寶藏本.

별책으로 함께 포장된 96면 정가 48,000원의 六禮이야기는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것입니다.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110-044
전화 02)723-4480·732-9139